



## 호스피스와 삶

류승범 목사  
(대구 동서호스피스 실무책임)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이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라고 정의합니다. 호스피스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암과 여러 조건의 환경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며 다양한 가족문제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호스피스 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저를 더욱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스피스에 대한 삶의 의미를 경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사례들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56세의 이 남자환자는 당뇨 합병증과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후 희망이 없어 이틀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거의 혼수상태였고, 수액요법으로 3일 정도를 지냈으며 우리 호스피스 팀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들의 적극적인 간호와 호스피스 팀의 기도 덕분인지 환자의 의식은 조금씩 좋아졌고 환자는 수액요법을 중단한 후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관영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주치의 및 가족과 상의 후 비위관을 삽입하는 날 환자의 부인은 위관 영양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위관영양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환자상태를 파악하던 중 환자가 약 8일 정도 배변을 못한 상태였고 비만 체구여

서 욕창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매우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관장을 하였고 많은 양의 변을 보았습니다. 우리 호스피스 팀은 뒷마무리를 깨끗이 처리한 후 욕창예방을 위해 체위변경을 하였고 마무리를 할 때 짬 부인이 우리 옆에 앉으시며 하는 말이 “제 식구도 하기 힘든데 이렇게 환자에게 하는 걸 보니 제가 부끄럽네요. 조금 전 위관영양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호스피스 팀은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부인은 “위관영양이 무척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젠 눈대중으로도 잘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며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가 한달 정도를 지내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상태가 나빴던 환자라 가족들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 보호자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간호하였고 환자 분도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임종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 위로 받았으며 만족 해 하였습니다. 영적 지지 속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가족들도 슬픔은 컸겠지만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가족 간의 지지가 잘 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 환자에 대한 사랑과 표현이 보호자들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환자를 간호하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돌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호스피스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섬김입니다.

72세 담관암 환자가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지내시던 중 너무 피로 위하는 것 같으며 전화를 받고 저는 그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 집에 도착하니 보호자가 저를 잡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아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며 응급차가 곧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를 보니 이미 임종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설명하자 보호자들은 당황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가족들을 모이게 하여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도록 하였고, 찬송과 기도로 영적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도왔습니다. 10분 후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는 것을 보고 틈 날 때 영안실에서 조금씩 배워 두었던 염을 이 환자에게 적용시켜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임종간호와 응급차 후송을 마치고 밤 10시가 되었어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든 이유는 호스피TM는 병원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어떤 곳에서든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책임과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만 봉사를 합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나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미루거나 아예 없었던 일로 해버립니다. “돈도 안 받고 하는 봉사활동인데 뭐!” 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에게 있어 책임감은 당연한 것이지만 봉사자에게 있어서 책임감은 곧 헌신이 아닐까요?

9세의 여자 환아는 뇌암으로 1년간 투병하던 중 한 달 보름을 호스피스 팀의 방문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이였습니다. 5살 된 남자동생이 있었고 그 환아의 방에는 아이가 입던 예쁜 옷들과 웃으며 찍은 귀여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매우 젊었고 서로가 느끼는 슬픔들이 너무 크겠지만 서로에게 표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더 힘들어 할까봐, 아빠는 엄마가 더 힘들어 할까봐 말합니다. 호스피스 팀이 방문할 때면 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40분간을 그냥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것만으로 매우 만족 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활동에 더 힘을 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봉사활동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옆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진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절실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곳이 병원이건 가정이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목표가 모든 교인들은 배우는 자가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면 일하는 자로 말합니다. 헌신하다 지치고 힘들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다시 배우는 자리에서 잠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